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

이 호 택**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가정환경적 요인 중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알아 보아 청소년의 문제행동 완화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 청소년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1~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고, 5차년도 조사에 응했던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 여 청소년 244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자의 문제행동 및 가정폭력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들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연구 모형검증을 위해 바론과 케니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통제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제어 :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기통제력, 문제행동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dlghxor1@naver.com)

I. 서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주변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져만 가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대중매체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출, 성폭력, 음주, 흡연, 폭력, 교사 폭행 등에 관한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에벨(Ebel, R. L., 1969, p1127-1130)은 문제행동을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일에서 벗어난 일탈로써 지배적 사회집단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며,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가져다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가출, 흡연, 음주 등은 사회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지 않는 행동이므로 청소년의 대표적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해당 청소년 자신에의 사회적 부적응과 함께 타인에게 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하영희, 2004), 이러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윤선오 외, 2010). 따라서 이들의 문제행동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이 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선천적인 내부 특성인 유전적인 요인과 성장과정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성격적 요인을 들 수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조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학교, 사회 환경 등을 들 수 있다.(문영숙, 2008).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을 다룬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학교요인을 들 수 있는데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이정은과 조미형, 2007), 교사와의 애착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주리, 2008).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는 아동,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서 또래애착과 교사와의 애착이 문제행동에 대한 주요 예측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청소년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거나 충동성이 높은 경우 비행의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권재환과 이은희,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환경이다. 이에 대하여 이성식과 전신현(2001)은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연구결과에 따라 가부장적인 가정문화에서 자란 여자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의 저지르는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윤우석(2011)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에서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이 비행을 더욱 많이 저지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김준호와 정혜원, 2009)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성향이나 반사회성의 형성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듯이 가정요인은 청소년 문제행동의 시발점이자 빼놓을 수 없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다(이성식, 2003). 이러한 가정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를 당할 경우, 문제행동을 더 많이 저지룰 수 있게 되고(김형모 외, 2007) 공격성이 증가하여 학교 수업과 교사,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Baker & Siryk, 1984). 이와 유사하게 에머리(Emery, C. R., 2011)는 자녀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게 될 경우 무단결석, 흡연, 음주, 대마 흡입 등의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보고하였으며, 엄명용(2001)은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당할 경우에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았을 때(이경남, 2000; 조춘범과 조남홍, 2011; Gottfredson & Hirschi, 1990),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다양한 경로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느 한 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청소년의 문제행동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문제행동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가정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정폭력에 기인한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인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어느 한 유형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는 외현화적 문제 중, 공격성의 증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로 학교 폭력 가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단결석, 가출, 흡연 및 음주, 음란물 접촉 등의 문제행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자기통제력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자기통제력이라는 요소는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이 요소가 가정폭력 발생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역할을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체의 영향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폭력 노출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이들의 문제행동에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 추정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두 가지 유형인 부부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고 문제행동의 유형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가정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며 이 사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과 자기통제력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 방안 및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과 문제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3.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가정폭력 노출경험

가정폭력의 개념은 폭력의 유형이 무엇인가, 그리고 폭력의 대상이 누구

인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을 포함한 폭행과 위협적인 행동을 말한다(신선인, 2008). 또한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 이외에도 방임 및 유기 등의 가족 구성원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백옥현과 손현규, 2004; 김희수, 2005).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 또한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 학대, 노인학대, 형제간 폭력과 자녀의 부모 폭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운회, 2006, p20-23). 따라서 부부간에 발생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방임 등의 배우자 폭력과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방임 등의 학대를 가하는 아동학대는 모두 가정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상에서 가정폭력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이 보고되고 있는 유형이 바로 부부 폭력과 아동학대이다(김재엽과 이서원, 1999; Dobash, Wilson, & Daly, 1992). 이는 자녀가 가장 접할 확률이 높은 유형의 가정폭력이 바로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부폭력과 자녀 학대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부부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가족일수록 아동학대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김정란, 2003; 정혜숙, 2011; Appel & Holden, 1998; Carolyn, 2002). 따라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고 동시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된’이라는 표현이 적합하고(김재엽 외, 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이라 함은 부모간 폭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거나, 직접 학대를 당하는 경우와 부모간 직접 폭력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폭언이나 고함소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

이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정의하고 이 두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부부폭력의 유형은 정서적 폭력에서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및 방임과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지난 1년간 전체 부부폭력 발생률은 65.6%로 보고되었다(김재엽 외, 2010). 이는 부부 10쌍 중 6쌍 이상이 부부폭력을 경험한다는 의미로 한국의 가정폭력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16.7%로 조사되었고 정서적 폭력은 42.8%로 10쌍 중 4쌍 이상의 부부가 1년 동안 모욕감을 느끼거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밖에 경제적 폭력의 발생률은 10.1%, 성학대 발생률은 10.4%, 무관심 및 방임은 30.5%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구분하지 않거나 신체적 폭력에 초점을 두어 신체적 폭력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조되어 왔다(정윤경, 2008). 그러나 실제로 정서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장기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정윤경, 2008; Kent & Waller, 1998; Dutton, Goodman & Bennet, 1999; Coker, Smith, Bethea, King & Mckeown, 2000)를 토대로 보았을 때 정서적 폭력 또한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조사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이 16.7%, 그리고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42.8%로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부부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아동학대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 1523명 중, 자녀 학대를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로 나타났다(김재엽 외, 2010).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 29.2%로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의 발생률이 52.1%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방임은 17%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 간 자녀를 학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자녀를 학대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에서의 자녀학대 발생률 또한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동시에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Wolfe, Crooks, Lee, Smith & Jaffe, 2003).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우울과 자존감 하락, 불안 등의 내재화(Internalization) 문제와 공격성 및 폭력성 증가 등의 외현화(Externalization)의 문제를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많이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형모 외, 2007; Emery, 2011). 특히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에 훨씬 더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김재엽 외, 2003). 게다가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은 인지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며, IQ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체가 자녀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호택, 2012). 조춘범(2007)은 부부폭력에 노출된 아동일수록 우울을 매개로 하여 인터넷에 중독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김재엽 외(2011)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부모애착을 매개로 하여 이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우울과 불안, 공격성과 폭력성 증가, 학업능력 저하 및 인터넷 중독 등 매우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직접 눈으로 부모간 폭력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는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Kitzmann, Gaylord, Holt & Kenny, 2003), 무단결석을 자주 할 확률이 높다(Emery, 2011). 또한 자녀가 직접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엄명용, 2001), 신체적 학대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자녀의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이명진 외, 2007), 피학대 경험이 자녀의 학교 적응 및 일탈,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고되었다(배화옥, 2010).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될 확률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부부간 폭력 목격경험 혹은 아동 학대만을 다루어 해당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유형의 폭력 유형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문제행동

문제행동이란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거나 인정되는 행동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배적인 사회집단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행동, 특히 개인이나 집단에게 실질적 또는 잠정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Ebel, 1969, p1127-1130). 커퍼만(Kauffman, J. R., 1997, p22-26)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아동이 자기 자신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보이는 행동이며 이 경우 아동이 그들의 환경에 대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방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비행이나 범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규범에 어긋나거나 대다수에 의해 기대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해당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백혜정과 황혜정, 2006). 또한 남현미(1999)는 청소년의 행동 문제를 청소년이 가정, 학교 및 사회 환경에서 행하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송의결과 이미자(2001)는 문제행동을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보이는 인지적, 정서적, 심리 운동 기능적 발달 측면의 행동이 정상적인 개인들이 보이는 범주의 행동과 달리 발달적,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상의 비정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렇게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며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어느 문화에서는 문제행동으로 정의되는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는 문제행동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한국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기대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음란물 감상, 무임승차, 무단결석, 친구를 따돌리기, 조롱하거나 놀리기, 타인을 협박하기, 음주, 흡연, 타인을 폭행하기, 타인의 물건을 뺏기,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가출하기 등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러한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접촉할 수 있는 접근성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두진 외, 2011). 인터넷의 보급과 발달, 그리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인용 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비행을 저지르기 더욱 용이하게 되어가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청소년 자살 사이트, 오토바이 폭주족 모임 등 온갖 문제행동을 조장하는 사이버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를 더욱더 쉽게 얻고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서, 문제행동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0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²⁾’의 결과에 따르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남학생은 16.6%, 여학생은 7.1%로 나타났고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이 23.5%, 여학생이 18.3%로 보고되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청소년 흡연과 음주가 20%를 상회하는 청소년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비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흡연과 음주뿐 아니라 최근의 신문, 뉴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 교사 폭행, 절도, 성범죄 등에 관한 기사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도입과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이후로 청소년의 문제

2)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임.
(<http://yhs.cdc.go.kr/>)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기광도, 2011; 김유경, 2004; 이은아, 2000). 특히, 내재화 문제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고정자, 2003), 일탈 행동과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는 남자 청소년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정자 2003; Olweus, 1980). 반면, 공격성의 증가 및 일탈 행동 등의 문제행동이 남, 녀 차이가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민무숙과 김인순, 1999)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득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에 대해 바론과 하트나겔(Baron & Hartnagel, 1997)은 가정의 소득이 낮을수록 재산 비행과 폭력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성격 형성이나 발달에 있어서 심한 장애를 일으키고,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기 쉽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cloyd, 1998).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는 자원과 교육에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부모와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문제행동을 더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임수경과 이형실(2007)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학교 적응 능력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배화옥(2010)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학교 적응, 특히 일탈 행동을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저지른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희화, 2001). 게다가 낮은 자아존중감 자체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반사회성 문제행동 및 일탈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Dennellan 외, 2005). 자아존중감은 문제행동과의 인과적 관계에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김희화와 김경연, 2000),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더욱 많이 일으키게 되지만 동시에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일으킬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또래집단과의 교류를 증가시키거나 중비행을 증가시키지도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정익중, 2006). 광금주, 김의철과 박영신은 청소년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하였다(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는지가 이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소득,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바로 학교 요인이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이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성식과 전신현(2009)은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행친구와 어울리거나 부정적인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유순화(2003)와 정소희(2009)는 학업성적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측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또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비행집단과 어울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행동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기숙과 김수연, 1999). 또, 학업성적이나 공부, 숙제 등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도 청소년의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드러나(남재봉, 2008) 학교 요인 중 학업성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청소년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 환경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알려진 요인은 바로 또래 애착이다. 즉, 또래에 대해 느끼는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이다(Agnew, 1985; Wiatrowski, Griswold & Roberts, 1981). 이와 유사하게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은민, 2010). 그러나 반대로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에 더욱더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는 주로 문제행동을 자주 경험하는 친구와의 애착 수준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경, 2008). 또 분석 년도에 따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이주리,

2008) 결국,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또래 애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는 연구결과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청소년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교사의 경우 교사와의 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적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은민, 2010). 교사와의 애착이 높은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문제행동을 덜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이주리, 2008) 평균 이하의 교사 애착수준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급격하게 비행행동이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정기원과 권량희, 2006), 교사와의 애착안정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교적응력이 높아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와 윤은중,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또래와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자기통제력 이외에 성별, 소득,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학업 성적 및 스트레스, 또래애착과 교사에착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논의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이란 개인의 사회적 위치변화와 형벌체제에 대한 지식의 변화의 영향 이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차이를 말한다(Gottfredson & Hirschi, 1990). 또한 자기통제는 스스로 상황적인 요구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인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이경남, 2000). 이는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타인에게 줄 영향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범죄행위, 비행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충동성과 단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범죄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고 흡연이나 음주, 약물사용 및 도박 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고정자, 2005).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 Hirschi, 1990, p85-87)는 비행이나 모든 범죄가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순간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성취동기가 부족하고 충동적, 적대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특징이 있다(조유정 외, 2005).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에 노출되어 이를 행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이 즉각적인 만족과 충동을 억제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기통제력이 낮아질 수 있는데, 특히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Gottfredson & Hirschi, 1990).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통제력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학교 폭력의 가해 행위 등의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조춘범과 조남홍, 2011). 특히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경우에도, 자녀는 부모간에 갈등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고 이는 자기통제력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경님, 2000).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에 충동적이며 공격성이 증가되는 등 자기통제력의 저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조유정 외, 2005). 또한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자녀가 직접 경험할 경우, 자녀는 이를 그대로 학습하여 자기통제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유순화, 200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낮아지게 되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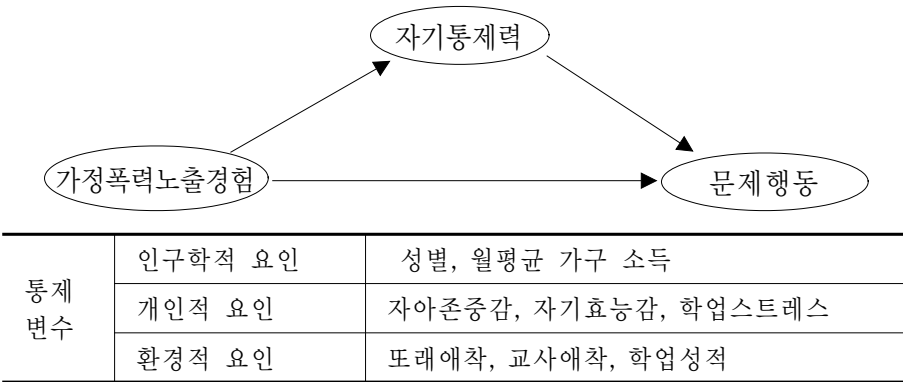
이고, 충동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Feldman & Wentzel, 1990). 김선영(2007)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사소한 비행과 심각한 비행으로 구분하였을 때 자기통제력은 두 유형의 비행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기광도(2006)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녀의 자기통제력 형성이 어렵게 되면 이는 자녀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면서 올바른 부모 양육에 의한 자기통제력 형성을 강조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우울과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보다는 공격성, 일탈 행동 증가 등의 외현화 문제에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Hinshaw, 1992), 이 외에도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의 대부분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일탈 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고정자, 2005; 권재환과 이은희, 2006; 문영숙과 한수정, 2009; 조유정 외, 2005),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 자녀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경우에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될 수 있고, 이러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저하시켜 문제행동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체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면서도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이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직접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통제력을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 및 피학대 경험과 자녀의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파악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자녀학대 피해경험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가정폭력 목격경험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소득, 성적,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또래와 교사 애착을 통제변수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모형에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바론과 케니에 따르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매개변수(자기통제력)를 회귀모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독립변수(가정폭력 노출경험)는 종속변수(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수(가정폭력 노출경험)는 매개변수(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매개변수(자기통제력)은 종속변수(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한다.

넷째, 회귀모형에 매개변수(자기통제력)를 포함시켰을 때, 독립변수(가정폭력 노출경험)가 종속변수(문제행동)에 미치던 영향력은 0이 되거나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매개변수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조건의 경우, 매개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켰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던 영향력이 0이 되거나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부분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한다(Baron & Kenny, 1986).

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 패널(KYPS)’의 초등학교 4학년 1~5차년도 데이터³⁾를 활용하여 연구 문제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은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설정 및 잠재적 직업선택 준비, 이탈행위, 여가참여 등의 횡단적 실태, 종단적 변화양상 및 그 원인에 대한 파악에 목적을 두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중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의 실태 및 변화양상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유용한 조사 연구로 이 연구 조사의 설문지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이들의 성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과 이들의 가치관, 그리고 행동양식 및 문제행동 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질문하는 문항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제행동에의 경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 독립변수인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 그리고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묻는 등,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의 대부분을 측정하는 문항을 두고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파악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큰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청소년 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1~5차년도 데이터의 경우 약 2800명을 표본으로 삼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3) 아동청소년 데이터아카이브(<http://archive.nypi.re.kr>)에서 구축한 패널조사 자료.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가 종단적 추정이 가능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1~4차 년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측정하고 과거에 있었던 폭력 노출경험이 5차년도에 추적 조사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5차년도의 데이터로 측정하였다. 이는 폭력 노출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 직후에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보다는 폭력에 대한 노출이 누적되었을 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서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을 위한 최종 분석대상은 한국청소년패널의 5차년도 응답자인 중학교 2학년 남, 여 청소년 2448명이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1에 요약되어 있다. 성별은 남학생이 53.6%, 여학생이 46.4%를 차지하였다. 가족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91.7%의 대다수가 양부모와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 가정이 6.7%로 나타났다. 부모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200~3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3%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응답 청소년들의 성적수준 분포를 보면 중위권에 속한 학생이 4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빈도(명)	비율(%)
성별 (n=2448)	남	1303	53.2
	여	1145	46.8
부모의 월평균소득 (n=2444)	100만원 이하	101	4.1
	101~200 만원	409	16.7
	201~300 만원	717	29.3
	301~400 만원	518	21.2
	401~500 만원	290	11.9
	501만원 이상	409	16.7
성적수준 (n=2201)	상위권	865	39.3
	중위권	944	42.9
	하위권	392	17.8
가족구성형태 (n=2444)	양친 가정	2242	91.7
	한부모가정	163	6.7
	계부모가정	36	1.5
	양친 없음	3	0.1

3. 변수측정

1) 독립변수: 가정폭력 노출경험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자기통제력 및 문제행동 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들은 모두 패널데이터에서 이용한 문항 그대로를 이용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으로 측정하였는데 1~4차 년도에서 모두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은 “나는 부모님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을 본적이 많이 있다.”의 신체적 폭력 목격경험을 묻는 문항과 “나는 부모님이 서로에게 욕설을 한 것을 본적이 많이 있다.”의 언어적 폭력 목격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을 묻는 문항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의 정서적 학대 피해경험을 묻는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0,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1, ‘보통이다.’는 2, ‘그런편이다.’는 3, 마지막으로 ‘매우 그렇다.’는 4로 계량화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총 4년에 걸쳐서 수집된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 데이터의 평균값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1차년도는 .773, 2차년도엔 .776, 3차년도에는 .819, 4차년도에서는 .869로 나타났다.

2) 종속변수: 청소년의 문제행동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5차년도 데이터의 문제행동으로 측정하였는데, 패널조사에서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측정하였던 1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문제행동의 범주를 결정하였다. 이 중에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0.4 이하로 나타난 교사에게 대들기, 시험시간에 컨닝하기, 그리고 무단횡단의 3개 유형의 문제행동을 제외한 고의로 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무임승차,

무단결석, 학용품비나 준비물비를 다른데 사용하기, 친구를 따돌림, 타인을 놀리거나 조롱하기, 타인을 협박하기, 음란물 보기, 흡연, 음주, 타인을 폭행하기,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 타인의 물건을 빼앗기, 그리고 가출 경험 등 13개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 청소년의 해당 문제행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 없음’은 0, ‘경험 있음’은 1로 이분화하여 측정하였고, 종속변수로 활용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각각의 문제행동의 경험여부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즉 문제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경험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Cronbach's α 계수는 .693으로 나타났다.

3) 매개변수: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5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통제력의 측정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하고본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학교숙제를 제때에 잘해가지 않는 편이다.”등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0,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1, ‘보통이다.’는 2, ‘그런 편이다.’는 3, 마지막으로 ‘매우 그렇다’는 4로 측정이 되었는데 부정적인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통제력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55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의 측정

통제 변수 중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계량화하여 측정하였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0~100만원은 0, 101~200만원은 1, 201~300만원은 2, 301~400만원은 3, 401~500만원은 4, 마지막으로 501만원 이상은 5로 재부호화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데 부정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는 문항은 ‘매우 그렇다.’는 0, ‘전혀 그렇지 않다.’는 4로 역코딩하여 측정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되 ‘전혀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4로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777, .870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역시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 는 .834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에서 또래애착은 매우 친한 친구들에 대하여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 노력하는 편이다.”,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의 4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교사와의 애착은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등의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래애착과 교사애착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0, ‘매우 그렇다.’는 4로 계량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과 교사 애착 수준이 높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또래애착 척도는 .810, 교사애착의 경우 .74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지난 학기 반성적 비율로 측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학기에 차지한 성적의 등수가 반 전체 학생수에서 차지한 백분율을 기준으로 상위 30% 이내의 학생들은 1, 30~70%에 속하는 학생들은 2, 70~100%에 속하는 학생들은 3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즉, 점수가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임을 의미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중 가구유형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약 92%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연구모형에서 제외하였다.

4.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의 초4,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재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과정을 거쳐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모형의 각 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문제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활용하고,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소벨(Sobel, 1982)의 Z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1)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 실태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활용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각각의 문제행동 발생 여부 점수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문제행동 변수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3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0.76, 표준편차는 1.32로 나타났고 이는 표2에 요약되어 있다.

표3은 조사 대상자의 문제행동 발생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2448명의 남, 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행했다고 응답한 문제행동의 유형은 음란물 보기로 333명의 학생(13.6%)가 지난 한 해 동안 음란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준비물, 학용품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331명(13.5%)로 나타났으며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75명(11.2%)으로 열명 중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음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친구들을 조롱하고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5%로 나타났으며 협박이나 폭행, 금품 갈취 등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 간, 가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8%로 나타나 100명중 3명에 가까운 학생이 지난 1년 동안 가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 실태의 특성

특성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문제행동 발생 실태 (n=2448)	0.76	1.32	.00	13.00

〈표3〉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 실태

문제행동 유형	발생 여부	빈도(명)	비율(%)
고의로 한 무임승차	발생함	231	9.4
	발생하지 않음	2217	90.6
무단결석	발생함	68	2.8
	발생하지 않음	2380	97.2
학용품비 다른 용도로 사용	발생함	331	13.5
	발생하지 않음	2117	86.5
남을 따돌리기(왕따)	발생함	103	4.2
	발생하지 않음	2345	95.8
남을 놀리고 조롱하기	발생함	119	4.9
	발생하지 않음	2329	95.1
남을 협박하기	발생함	30	1.2
	발생하지 않음	2418	98.8
음란물 보기	발생함	333	13.6
	발생하지 않음	2115	86.4
음주	발생함	275	11.2
	발생하지 않음	2173	88.8
흡연	발생함	127	5.2
	발생하지 않음	2321	94.8
타인 폭행	발생함	51	2.1
	발생하지 않음	2397	97.9
타인의 금품 갈취	발생함	64	2.6
	발생하지 않음	2384	97.4
타인의 금품 훔치기	발생함	55	2.2
	발생하지 않음	2393	97.8
가출	발생함	68	2.8
	발생하지 않음	2380	97.2

2) 응답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패널 자료의 1~4차 년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으로 측정하였다. 4개 년도에서

부모간 신체폭력 목격경험은 최소값 0, 최대값 3.5로 나타났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0.43, 0.53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언어 폭력 목격경험은 최소값 0, 최대값 4로 나타났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0.78, 0.70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학대 피해경험은 최소값 0, 최대값 4로 나타났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0.60, 0.67로 나타났으며, 부모로부터의 언어학대 피해경험은 최소값 0, 최대값 4로 나타났고 평균 및 표준편차는 각각 0.47, 0.5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1~4차 년도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응답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는 다음의 표5와 같다. 1~4차 년도의 응답 청소년의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아동학대 피해경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가장 높은 확률로 접하게 되는 가정폭력의 유형은 부모간의 언어폭력 목격경험임을 알 수 있다. 꾸준히 40%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간의 언어폭력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라고 응답하였고 반면 부모간의 신체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 역시 꾸준히 25%, 즉 4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이 부모간의 신체폭력 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경험도 신체적, 언어적 학대 경험 모두 30%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약 6%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학대를 자주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언어 학대의 경우에도 100명 중 5명의 학생들이 심각한 수준의 언어 학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모간의 언어폭력에의 노출도 8%의 이상의 학생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4〉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의 특성

특성	경험 유형	폭력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정폭력 노출경험 (n=2448)	부부폭력	신체적 폭력	.43	.53	.00	3.5
	목격경험	언어 폭력	.78	.70	.00	4.00
	아동학대	신체적 폭력	.60	.67	.00	4.00
	피해경험	언어 폭력	.47	.57	.00	4.00

〈표5〉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

년도	경험 유형	폭력 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총계 %
1차 년도	부부폭력 목격경험	신체적 폭력	75.5	14.4	6.5	2.4	1.2	100
		언어 폭력	59.8	18.3	13.2	5.9	2.7	100
	아동학대 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60.9	19.0	12.0	4.7	3.3	100
		언어 폭력	72.1	17.7	7.2	1.8	1.3	100
2차 년도	부부폭력 목격경험	신체적 폭력	74.2	14.2	7.8	2.2	1.6	100
		언어 폭력	59.0	19.1	13.2	5.7	2.9	100
	아동학대 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66.1	16.3	11.4	3.9	2.3	100
		언어 폭력	73.7	15.1	6.9	2.8	1.5	100
3차 년도	부부폭력 목격경험	신체적 폭력	72.4	16.3	8.1	2.1	1.0	100
		언어 폭력	54.7	23.1	13.6	5.7	2.8	100
	아동학대 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67.8	17.4	9.9	3.1	1.8	100
		언어 폭력	70.6	17.2	8.3	2.6	1.3	100
4차 년도	부부폭력 목격경험	신체적 폭력	68.8	15.7	10.7	3.4	1.4	100
		언어 폭력	51.4	23.2	16.8	6.2	2.5	100
	아동학대 피해경험	신체적 폭력	67.9	15.4	11.0	3.7	2.1	100
		언어 폭력	65.2	17.6	12.1	3.6	1.4	100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다루었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교사애착, 또래애착, 학업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의 기술통계치는 아래의 표6과 같다. 개인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각각 2.46(SD=.66), 2.50(SD=.75), 1.93(SD=1.00)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5점 척도의 중위수인 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특성인 또래애착의 평균값은 3.16(SD=.66)으로 나타나 중위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애착의 경우 평균값이 1.57(SD=.85)로 또래애착 수준에 비해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의 경우 평균값이 2.49($SD=.74$)로 나타나 응답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6〉 주요 변수의 특성

(n=2448)

변수	평균(M)	표준편차(SD)	최소값	최대값
자아존중감	2.46	.66	.00	4.00
자기효능감	2.50	.75	.00	4.00
학업스트레스	1.93	1.00	.00	4.00
또래애착	3.16	.66	.00	4.00
교사애착	1.57	.85	.00	4.00
자기통제력	2.49	.74	.00	4.00

2. 연구모형 검증

1) 1단계 분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이유재, 1994), 상관분석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4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귀분석을 통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검증하여 다중공선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모두 0.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IF)값이 모두 1.50보다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7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회귀모형의 F값은 15.852($p<.001$)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보여주고 있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6.0%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적($B=.121$, $p<.001$), 자아존중감($B=-.126$, $p<.001$)과

자기효능감($B=.083$, $p<.001$), 학업스트레스($B=.072$, $p<.01$), 또래애착($B=.054$, $p<.05$), 교사에착($B=-.05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본인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문제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Beta 값은 .05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에의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표7〉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2448)

변수	B	S.E	β	Sig.
상수	13.124	.314		.000
성별	.098	.060	.035	.099
소득	.013	.021	.014	.515
성적	.007	.001	.121	.000
자아존중감	-.265	.050	-.126	.000
자기효능감	.153	.043	.083	.000
학업스트레스	.099	.030	.072	.001
또래애착	.114	.046	.054	.013
교사에착	-.142	.034	-.087	.000
가정폭력 노출경험	.155	.060	.056	.010
F				15.852***
R ²				.060
Adj R ²				.056

*** $p<.001$

2) 2단계 분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회귀 모형의 F값은 52.143($p<.001$)로 나타나 회귀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적,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가 자기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대해 가지는 Beta값은 $-.107(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기통제력 수준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다는 사실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표8은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n=2448)

변수	B	S.E	β	Sig.
상수	3.640	.156		.000
성별	.000	.030	.000	.988
소득	.003	.010	.006	.757
성적	-.005	.001	-.181	.000
자아존중감	.228	.025	.205	.000
자기효능감	-.017	.022	-.018	.417
학업스트레스	-.132	.015	-.180	.000
또래애착	-.027	.023	-.024	.243
교사애착	.032	.017	.037	.060
가정폭력 노출경험	-.158	.030	-.107	.000
F			52.143***	
R ²			.174	
Adj R ²			.171	

*** $p<.001$

3) 3단계 분석: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9에 요약되어 있다. 회귀모형의 F값은 35.076으로 통계적 적합성이

검증되었다($p<.001$). 회귀 모형의 설명력은 12.4%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Beta값은 $-.282(p<.001)$ 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이 드러났다. 즉,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9〉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n=2448)

변수	B	S.E	β	Sig.
상수	15.187	.315		.000
성별	.109	.057	.039	.056
소득	.014	.020	.014	.490
성적	.004	.001	.074	.000
자아존중감	-.150	.049	-.072	.002
자기효능감	.146	.042	.079	.000
학업스트레스	.031	.030	.023	.291
또래애착	.096	.044	.045	.030
교사애착	-.124	.033	-.076	.000
자기통제력	-.531	.041	-.282	.000
F	35.076***			
R ²	.124			
Adj R ²	.121			

*** $p<.001$

4) 4단계분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10과 같다.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포함시킨 회귀 모형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31.727로 나타나 본 회귀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다($p<.001$). 또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종전의 6.0%에서 12.5%로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2.5%로 나타났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다른 변수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해 Beta 값의 변화 및 그 유의도를 살펴본 결과 자기통제력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Beta 값은 .056에서 .026으로 낮아짐과 동시에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통제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자기통제력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에의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녀는 자기통제력의 저하를 통해 문제행동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10〉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n=2448)

변수	1단계				2단계			
	B	S.E	Beta	Sig.	B	S.E	Beta	Sig
(상수)	13.124	.314		.000	15.037	.338		.000
성별	.098	.060	.035	.099	.099	.058	.035	.086
소득	.013	.021	.014	.515	.015	.020	.015	.448
학업성적	.007	.001	.121	.000	.004	.001	.071	.001
자아존중감	-.265	.050	-.126	.000	-.145	.049	-.069	.003
자기효능감	.153	.043	.083	.000	.144	.042	.078	.001
학업스트레스	.099	.030	.072	.001	.030	.030	.022	.312
또래애착	.114	.046	.054	.013	.100	.044	.047	.024
교사애착	-.142	.034	-.087	.000	-.125	.033	-.076	.000
가정폭력 노출경험	.155	.060	.056	.010	.072	.058	.026	.218
자기통제력					-.526	.041	-.279	.000
F	15.852***				31.727***			
R ²	.060				.125			
Adj R ²	.056				.121			

***p<.001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한 결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직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시에 자기통제력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바론과 케니(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으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마지막으로 자기통제력에 의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소벨(1982)의 Z검증을 실시하였다. 소벨(1982)에 따르면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로 가는 경로를 a, 매개변수에서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b라고 하였을 때, 그 경로 a와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통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였다. Sobel 테스트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독립변수(가정폭력 노출경험) → 매개변수(자기통제력)

b: 매개변수(자기통제력) → 종속변수(문제행동)

SE_a : a의 표준오차

SE_b : b의 표준오차

표11에서 볼 수 있듯이, Sobel 테스트를 통한 Z 값은 4.88로, 1.96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자기통제력에 의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여기에서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문제행동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통제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11〉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로	Z
가정폭력 노출경험 → 자기통제력 → 문제행동	4.88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자기통제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문제행동 예방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가정폭력과 자기통제력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패널’의 초등학교 4학년 1~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5차년도 자료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 여 2448명의 학생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 실태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년간 경험을 이 가장 높은 문제행동의 유형은 음란물 이용(13.6%)과 학용품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13.5%), 그리고 음주(11.2%)로 나타났다. 그 외에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로 나타났으며 법에 위반하는 행위인 폭행, 협박, 금품 갈취 등을 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년간 가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0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보고된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가능한 해석은 실제로 응답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인데 허쉬와 갓프레드슨(1983)은 청소년이 성장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어도 10대 후반까지는 비행, 범죄가 증가하면서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아직 중학교 2학년인 1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등학생 응답자 대다수가 포함되었던 ‘2010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의 결과에 비해서 문제행동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능한 해석은 응답 청소년들이 사회적 바람직성

(social desirability)에 따라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문항에 솔직하지 않았을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2차 년도부터는 응답자를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는 패널조사의 특성상, 5차 년도에 실시한 패널조사는 개별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설문지에 실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문제행동 발생 사실을 은폐,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해당하는 문제행동들을 행한 비율이 3%에 가깝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 100명 중 3명이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를 살펴보면, 1~4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부모간 언어폭력 현상으로 약 4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이상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신체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최소 25%이상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부모간 신체적, 언어적 폭력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부모로부터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2명 중 1명의 비율로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 혹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정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 p<.05$). 즉,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beta=-.107, p<.001$)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일수록 자기통제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통제력($\beta = -.282, p < .001$)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일으킨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본 결과, 자기통제력을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종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문제행동에 미치던 영향력은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beta = -.279, p < .001$)은 완전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기보단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을 저하시켜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정폭력예의 노출경험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가정폭력예의 노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부모간 폭력 노출경험 혹은 아동학대 피해경험 등 어느 한 유형의 가정폭력예의 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무심코 행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그리고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는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캠페인 혹은 공익광고를 제공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정폭력 발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부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 없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과 치료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동시에 학교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이들의 문제를 사정하고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를 좀 더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문제행동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및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음란물 접촉과 음주 등의 행위를 한 비율이 10% 이상이라는 사실, 그리고 범죄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에 육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여러 유해 매체 및 유해 정보에의 접근성의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문제행동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릇된 행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학교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학교차원의 접근과 노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학교사회복지의 일환으로 문제행동 예방 교육과 개입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증원을 통해 학교 사회복지사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 청소년 인권에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교사들의 개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셋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기통제력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통제력은 특히 가정폭력에의 노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

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경험은 자기통제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의 문제행동 증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정폭력에의 노출이 자기통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는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문제행동을 일으킬 확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은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에게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역할 부여 등을 통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서비스의 대부분이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에서 벗어나 피해자 및 가족 전체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들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자기통제력 향상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은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문항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유형에 있어서 세분화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즉, 폭력의 강도는 경미한 폭력이었는지 심한 폭력이었는지 구분이 어려웠고, 양친 중 누가 가해자 인지 또한 구분을 할 수 없었다. 또 아동학대의 다른 중요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성적 학대 및 방임의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이들 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지만, 주로 가정환경과 개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에는 가정환경과 개인적 기질이외에도 학교의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행동에 대한 허용도와 지리적 환경, 분위기 등 보다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생태체계학적 관점에서 문제행동의 원인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응답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노출경험 및 문제행동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정교한 측정이 요구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응답 청소년의 지난 1년간 문제행동 발생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할 수는 있었으나, 선행 연구에 비해 그 발생률이 너무 미약하다. 이는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의 한계에서 비롯되어 축소보고 혹은 응답에 있어서 솔직하지 못할 가능성에서 비롯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지난 4년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할 경우, 반항심이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가정폭력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의 경험이 현재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즉각적인 반응으로서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과거에 경험한 가정폭력을 변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제언에 기반한 후속연구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과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예방 및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pp. 121-143.
-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동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pp. 1-17.
- 곽금주·김의철·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pp. 111-121.
- 권재환·이은희(2006). 남녀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pp. 325-351.
- 기광도(2011). 초등학생 비행의 성차분석: 자기통제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2(2), pp. 5-30.
- 기광도(2006). 자녀양육이 자기통제력 및 비행에 미치는 효과분석, 형사정책연구, 17(2), pp. 137-172.
- 김선영(2007). 자기통제력과 기회요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1, pp. 36-78.
- 김운희(2006). 가정폭력범죄(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 김유경(2004). 청소년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인지적 특성: 비합리적신념, 자동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이지현·윤여원(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3(4), pp. 59-82.
- 김재엽·조학래·양혜원(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pp. 27-54.
- 김재엽·최재성·Emery, C. R.·김동구·박상언·정윤경·이정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김정란(2003).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중학생 자녀의 아내학대 목격과 자녀학대 피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pp. 1-10.

- 김준경(2008).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이 교정시설 보호청소년의 위험행위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3), pp. 241-255.
- 김준호·정혜원(2009). 부모애착과 비행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분석, *형사정책연구*, 20(2), pp. 125-148.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16(2), pp. 207-234.
- 김형모·이숙진·서해정·최은정·김은정·문순희(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pp. 53-77.
- 김희수·윤은중(2004). 청소년의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pp. 93-115.
- 김희화(2001). 청소년의 초기 비행과 지속적 비행에 대한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8(1), pp. 143-162.
- 김희화·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pp. 1-10.
- 남재봉(2008).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사회과학연구*, 25(2), pp. 1-26.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영숙(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pp. 405-414.
- 문영숙·한수정(2009). 중학생의 부모-자녀 애착과 자기통제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pp. 302-310.
- 민무숙·김인순(1999).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박은민(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3(3), pp. 75-88.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4(2), pp. 193-217.
- 백혜정·황혜정(2006). 초등학생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 및 자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pp. 1-27.
-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pp. 153-182.
- 송의열·이미자(2001). 유아의 문제행동과 양육태도, 공주영상정보대학논문집, 8, pp.153-177.
-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pp. 149-178.
- 유순화(2003).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에 의한 청소년 비행 예측, 청소년학연구, 10(4), pp. 289-315.
- 윤선오·박명호·권장수(201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20(1), pp. 25-47.
- 윤우석(2011).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부모의 양육과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검증, 형사정책연구, 22(1), pp. 137-172.
- 이기숙·김수연(1999).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인지 수준과 비행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6(1), pp. 49-71.
- 이경님(2000). 아동의 행동문제, 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8, pp. 37-52.
- 이경님(2000). 학령전 아동의 자기통제, 사려성과 자아개념의 관계, 동아교육논총, 26, pp. 1-15.
- 이명진·조주연·최문경(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 pp. 9-42.
- 이성식(2003). 가정과 청소년 비행: 주요 이론들의 매개과정을 통한 검증, 형사정책연구, 55, pp. 175-210.
- 이성식·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pp. 173-198.
- 이성식·전신현(2009). 학업성적과 청소년비행: 청소년패널자료를 통한 비행이론들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2), pp. 91-111.
- 이유재(1994). 상호작용효과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에서 주효과의 검증에 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4), pp. 183-210.

- 이은아(2000).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조미형(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pp. 79-102.
- 이주리(2008). 중고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 애착과 비행, 한국생활과 학회지, 17(4), pp. 1-12.
- 이주리(2008). 초등학생의 부모, 교사 및 친구애착이 일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4), pp. 1-13.
- 이호택(2012).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논단, 11(1), pp. 25-52.
- 임수경·이형실(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와의 관계, 친구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9(3), pp. 169-183.
- 조유정·석주영·박인전(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pp. 133-164.
- 정기원·권량희(2006). 부모 및 교사 애착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일반건강 이론의 실증 분석, 청소년학연구, 13(5), pp. 81-102.
- 정소희(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pp. 31-64.
- 정윤경(2010).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자의 정서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1), pp. 185-209.
- 정익중(2006). 자아존중감과 청소년비행 간의 상호적 영향, 사회복지연구, 31, pp. 133-159.
- 정혜숙(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3), pp. 83-108.
- 조준범(2007). 청소년의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 세계학술대회 자료집.

- 조준범, 조남홍(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pp. 75-102.
- 하영희(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 연구*, 12(2), pp. 42-52.
- Agnew, R.(1985).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 longitudinal test. *Criminology*, 23(1), pp. 47-61.
- Appel, A. E., & Holden, G. W.(1998). The co-occurrence of spouse and physical child abuse: A review and appraisal.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4), pp. 578-599.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 1173-1182.
- Baron, S. W., & Hartnagel, T. F.(1997). Attributions, affect and crime: Street youth's reactions to unemployment. *Criminology*, 35(3), pp. 409-434.
- Coker, A. L., Smith, P. H., Bethea, L., King, M. R., & McKeown, R. E.(2000). Physical health consequenc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rch Fam Med*, 9, pp. 451-457.
- Dobash, R. P., & Wilson, M., & Daly, M.(1992). The myth of sexual symmetry in marital violence. *Social Problems*, 39(1), pp. 71-91.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E.,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pp. 328-335.
- Dutton, M. A., Goodman, L. A., & Bennett, L.(1999). Court-involved battered women's responses to violence: The role of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abuse. *Violence and Victims*,

- 14(1), pp. 89-104.
- Ebel, R. L.,(1969). Encyclopedia of education research. The MacMilan Company.
- Emery, C. R.(2011). Controlling for selection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behavior problems and exposur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8), pp. 1541-1558.
- Feldman, S. S., & Wentzel, K. R.(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interaction patterns, classroom self-restrai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adolescent boy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4), pp. 813-819.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rtley, C. C.(2002). The co-oc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Examining both neglect and child physical abuse. *Child Maltreatment*, 7(4), pp. 349-358.
- Hinshaw, S. P.(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 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mplication for substance preven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1, pp. 127-155.
- Hirschi, T., & Gottfredson, M. R.(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pp. 552-584.
- Kauffman, J. R.,(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6th, 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Kent, A., & Waller, G.(1998). The impact of childhood emotional family environment: An extension of the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and Neglect*, 22(5), pp. 323-346.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s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pp. 185-204.

- Olweus, D.(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6), pp. 644-660.
- Sobel, M. E.(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 13, pp. 290-312.
- Wiatrowski, M.D., Griswold, D. B. & Roberts, M. K.(1981).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5), pp. 525-541.
- Wolfe, D. A., Crooks, C. V., Lee, V., McIntyre-Smith, A., & Jaffe, P. G.(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and critiqu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pp. 171-187.

Abstract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behavior problems : Mediation effects of self-control

Lee Ho-tae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mong adolescents on their behavior problems. In addition, mediation effect of self-control wa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the necessity for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s a way to mitigate teenagers' problematic behaviors was suggested.

For the purpose, the Korean Youth Panel Study(KYPS)'s 1st~5th years of panel data was utiliz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448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were traced in the 5th year's data collection. These students were engaged in the second year of middle-school. To see the actual condition of participant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behavior problem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verify research models, hierarchical regression was conducted. Crucial findings are as follows;

Exposure to family viol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eenagers' behavior problems. At the same tim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lower level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and their problematic behaviors, self-control worked as a complete mediator. That mea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oes not affect behavior problems directly. Rather,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ffects deviant behaviors indirectly via lower level of self-control. From these

*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findings, the necessities for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and offering training for self-control to adolescents were suggested.

Key word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Parents attachment, Self-control, Behavior problems

